

위대한 수업(Great minds)

EBS의 월~금 오후 11:40~12:00(20분)에 하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다.

주디스 버틀러, 마이클 샌델, 제레드 다이아몬드, 안도 타다오, 리처드 도킨스, 폴 크루그먼, 슬라보예 지젝, 제인 구달, 브라이언 슈미트, 오드리 탕 등 한 명만 초청해도 화제가 될 수준의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잘 알려진 각 분야 석학들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교양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화려한 출연진으로 방송 전부터 '수신료의 가치'라 불리며 화제가 되었다. 시즌 1에서 이미 각 분야의 내로라하는 석학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시즌 2에서는 범위를 넓혀 유명한 예술가, 활동가들도 나왔으며 시즌 3에서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대거 공개되며 화제가 되었다.

시즌1 : 2021.08.30. ~ 2022.06.09.

시즌2 : 2022.08.29. ~ 2023.07.18.

시즌3 : 2023.08.28. ~

KBS의 수신료 인상 이슈와 맞물리면서, 가구당 2500원의 수신료 중 고작 70원(전체 수신료의 3%)만 할당받고도 저런 저명한 학자들을 모조리 섭외한 것부터 대단하다면서 'EBS가 진정한 수신료의 가치'라는 평이 쏟아졌다.

공식사이트 : <https://home.ebs.co.kr/greatminds/index>

EBS 로그인만 하면 지난 회차를 무료로 볼 수 있다.

글로벌 사이트 : <https://www.thegreatminds.com/>

6개 국어 자막 (영어, 한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과 강의 대본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근데 유료인거 같네요..)

제작진의 후일담에 따르면, 폴 크루그먼은 고령이다보니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섭외가 어려울 것을 예상했지만 대한민국에 EBS와 같은 공영 교육방송사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나서 놀라워하며 흔쾌히 출연해줬다고 한다. 시즌1 때 섭외를 하는 게 힘들었는데 허성호 CP의 은사인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은사인 비놀드 아가왈 미 버클리대 교수를 소개해 준 것이다. 15년 전 학생이던 시절 아가왈 교수의 한국 안내를 맡은 것이 인연이 됐다. 아가왈 교수가 학계 인사들에게 연락을 취해주었고 성공률은 100%였다. 조지프 나이, 폴 케네디 등이 그렇게 섭외됐다. 이후 시즌2부터는 섭외가 수월해지고 오히려 영광이라는 답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섭외 메일에 시즌1에 나온 석학들의 이름을 같이 적어서 보냈다고 한다. 시즌 3에서는 무려 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해 다양한 인사가 출연한다.